발간번호
MYF21-20-개

ISSUE BRIEF

이주배경 924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와 정책 과제 모색

3호
2021.12.

*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
그중에서도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과 관련된 이슈를 모아 발간합니다.

무지개청소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3호

기획 의도

현장 실무자는 프로그램 기획 시 관련 정책 및 통계 자료를 근거 삼아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모색합니다. 그러나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통계는 각각의 유관 부처에서 목적에 따라 분절적으로 산출되고 있어 실무자가 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부처 통계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와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정책 중복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3호에서는 이러한 한계점 극복을 위해 추진된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태조사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의 방향성 수립에 기여하고자 이주배경청소년 유형별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비(非)이주배경청소년 집단과의 성장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이번 호에서는 조사 주요 결과와 활용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합니다.

조사 리뷰에서는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그리고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슈 발굴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학교 및 지역 현장 전문가의 고견(高見)을 들어보고 실태조사의 기초 통계자료로서의 가치와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쉽지 않았던 조사 데이터 수집을 위해 협력해 주신 분들의 귀한 경험을 감사의 마음으로 기록하고자 합니다.

'이주배경924'에 담긴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 기관 혹은 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는 글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와 협업의 가치
차윤경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이사장

조사 리뷰

국내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의의
양계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슈 발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고민하게 되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의 미래
김윤영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소장

학교 현장에서 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의 필요성
한경은 | 경기 신천초등학교 교감

지역현장에서 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의 필요성
이승미 |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

이주배경청소년 통계 구축과 활용에 대한 소고
조혜영 |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함께한 사람들

이지은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팀장
김수영 | (사)글로벌청소년센터 대표
배예영 | 케이스탯리서치 부장
장인숙 | 남북하나재단 팀장
차미리 | (사)북한인권시민연합 팀장
최효경 |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와 협업의 가치

차윤경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이사장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한국 사회가 빠르게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최근 약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하여 감소 추세로 돌아서기 직전인 2019년 통계에 의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약 252만 명을 상회하였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4.9 퍼센트에 해당한다. 이주배경인구가 전체 인구의 5 퍼센트 이상이면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분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의하면 한국은 이미 다인종 다문화 국가의 문턱에 다다른 셈이다.

미래 한국 사회의 주역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 중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의 증가 추세는 더욱 가파르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수는 약 26만 5천 명에 달한다. 이들 중 초·중·고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 학생은 약 16만 명으로 전체 학생의 약 3 퍼센트에 해당한다. 초저출산 영향으로 인한 전체 출생아의 감소, 매년 전체 결혼의 약 10 퍼센트를 상회하는 국제결혼의 비중, 그리고 전체 출생아의 약 6 퍼센트에 달하는 다문화 가정 출생아의 비중 등을 감안한다면 학교 안팎의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의 비율 증가 역시 피할 수 없는 미래다.

이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와 이를 수반하는 사회문화적 다원성의 증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임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에 앞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여러 서구 사회의 사례가 보여준 바와 같이, 만약 이러한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는 날로 증폭되는 분열과 갈등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사회구성원의 문화 및 정체성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다문화 친화적 제도와 사회문화적 풍토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면 한국 사회는 풍부한 창의적 인적 기반과 역동성을 갖춘 품격 있는 문화 선진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번에 발간하는 이슈브리프 '이주배경 924' 3호는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향한 첫걸음은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다. 그동안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등 유관 기관에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나름의 통계를 산출해 왔다. 그러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조사 범위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통계가 상호 연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도한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는 기존의 통계가 지닌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매우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실태조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 집단과 비이주배경청소년 집단의 광범위한 비교 데이터 통계를 확보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기회 격차에 대한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심층적 연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본 실태조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여러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 및 업무 연계의 산물이었다. 연구팀은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연구 수행을 위하여 교육부, 여성가족부, 북한이탈주민 관련 대안학교 및 남북하나재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안산이주청소년지원센터, 수원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난민센터,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았다. 향후 정기적인 이주배경청소년 통계구축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관련 기관들과의 지속적이고도 공고한 협조체제 유지는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선진 다문화 한국을 향한 긴 여정에서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의 격언은 우리 모두의 앞길을 밝힐 등불임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탈북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개발,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2021년 〈이주배경924〉 1호 발간을
시작으로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최근 이슈
및 현장 사례 파악 등을 파악하여 지역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현안에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http://www.rainbowyouth.or.kr/

1

조사 리뷰

국내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의의

양계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내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의의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주배경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yangkm@nypi.re.kr

이주배경청소년의 개념과 현황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본인 또는 부모가 이주의 경험을 지닌 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을 말한다. 여기서 이주의 경험은 국경을 넘은 경우로 외국뿐 아니라 북한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외국배경뿐 아니라 탈북의 배경을 지닌 청소년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총 7개 하위 유형을 포함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이 국내에 얼마나 거주하는지 전체 규모를 위의 개념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 이유는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이주배경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통계가 생성되고 있지만, 통계를 생산하는 주체마다 그 목적과 대상이 상이하며, 본 조사에서 개념화한 모든 범주의 이주배경청소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접근가능한 통계로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과 교육부의 다문화학생현황과 탈북학생 현황자료를 들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현황자료에서는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집계되고 있고, 부모 중 한 명 이상은 한국국적이 있는 경우가 포함되고 있는데, 2019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에 총 264,62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19세 이상의 후기청소년들의 현황은 집계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통계는 2020년 기준 147,378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통계의 대상은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으로 학교밖청소년은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탈북청소년의 통계는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현황과 교육부의 탈북학생 현황이 있는데,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현황은 북한에서 출생하여 탈북한 청소년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교육부의 탈북학생 현황은 북한출생자와 제3국출생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으나 역시 학교밖 청소년들과 남한출생자들에 대한 규모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 전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좀 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의의

우리 사회가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비(非)이주배경청소년들과 교육 및 진로에서 보일 수 있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이들이 집단적으로 사회 소외계층을 형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배경청소년과 비(非)이주배경청소년들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첫 번째 단계는 두 집단 간의 실제 격차가 존재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격차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파악의 부분이다. 물론, 국내에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조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주배경청소년 전체집단의 전국단위 및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비(非)이주배경청소년들과의 직접적 비교를 제시할 수 있는 조사는 더더욱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추진한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는 다양한 연령층의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했다는 점, 비(非)이주배경청소년의 발달격차 비교에 주요 목적을 두었다는 점, 그리고 이주배경청소년 집단 내의 다양성을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사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의 본 조사는 2021년 3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약 3개월간 수행되었다. 본 조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비(非)이주배경청소년들과의 차이

비(非)이주배경청소년들과 이주배경청소년들과의 차이를 보인 변인 중 주요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비(非)이주배경청소년들은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비하여 사교육경험과 사교육수준이 높고, 희망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비(非)이주배경청소년들에 비하여 한국 사회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즉, 한국사회의 공정성, 인권 존중, 다양성 인정, 부정부패 없음 등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셋째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비(非)이주배경청소년들에 비하여 남북통일의 필요성, 북한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지각하였고, 다문화 수용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비(非)이주배경청소년들에 비하여 신체적, 심리적 건강수준이 낮고, 스트레스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비(非)이주배경청소년들에 비하여 방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청소년 집단 내 하위 유형별 특성

본 연구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집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7개 범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그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은 국내에서 태어났는지 국외에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모두 이주배경인지 한쪽만 이주배경인지, 외국배경인지 탈북배경인지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집단별로 특징적인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 여러 하위 집단 중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낮고, 각종 정책적 지원의 경험이 낮은 반면, 생활 만족도는 높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으며, 이주배경집단 중에서는 사교육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는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고 부모의 방임수준이 가장 높으며, 이주배경집단 내에서 차별의 경험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에서 계속 살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의 이용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가장 높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가장 높으며 부모와의 활동 빈도도 높고, 한국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태도도 높고, 향후 한국에서 계속 살겠다는 비율도 높은 특성을 보여, 전반적으로 적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는 가정경제수준이 높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높지만,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건강검진 경험비율이 가장 낮고, 한국어 부족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부당행위나 기타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탈북배경 남한출생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와의 활동빈도가 높고, 이주배경 집단 중에서 사교육 경험이 높은 편이며,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비율도 높은 특성을 지니며, 한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비해 사회정치 문제에 가장 관심도가 낮고 각종 청소년활동 경험이 낮으며 진로의식 역시 가장 낮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탈북배경 북한출생 청소년의 경우는 심리적 건강수준이 가장 낮고, 부모와의 활동 빈도가 낮은 특성이 있지만,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고, 남북통일이나 북한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 희망교육 수준이 높고, 진로 의식도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3국출생 탈북배경청소년의 경우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가장 낮고, 부모와의 활동빈도도 낮으며, 투표행동의지가 가장 낮고, 한국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친절하다는 인식이 가장 낮으며, 한국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태도, 한국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낮고, 향후 한국에 계속 살겠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으며, 한국국적 취득계획 역시 가장 낮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나, 이주배경집단 전체에서 가장

취약하고, 한국에 정착하기 어려워하는 집단임을 시사하였다.

주요 결과의 시사점

이러한 집단별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이주배경청소년들은 국내 비(非)이주배경청소년과 비교하여 모든 면에서 취약하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더 건강하거나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비(非)이주배경청소년이 사교육경험이나 사교육시간 등이 높고 부모의 방임수준이 이주배경청소년집단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객관적 측면에서 더 유리한 환경으로 보이지만, 각종 사회적 가치, 통일에 대한 의식, 다문화수용성 각종 청소년활동 등 여러 측면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가 높고, 정치적 행동의도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사회의 소수집단의 특성으로 해석되는데 적극적인 행동보다는 사회적으로 도드라지지 않는 생활, 소수자 정체성에서 오는 삶의 스트레스 등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이주배경청소년들은 공통적 특성도 있지만 집단별로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는 비(非)이주배경청소년과 유사한 측면을 지니는 측면이 있고, 국외에서 태어난 경우는 그들의 특성이 있으며, 탈북의 배경을 지닌 집단은 통일에 대한 의식이 높은 등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을 동질적인 하나의 집단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각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셋째, 이주배경청소년 집단은 한국에 지속적 거주의사가 높은 집단이었다. 한국에 살겠다는 응답비율이 집단마다 다르나 외국배경자의 경우 60% 내외의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계속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하여 '곧 자기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사회가 왜 지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한국 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집단이라면 이들이 한국 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저출산 인구감소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단순 일회적 체험성 지원이 아닌 보다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지원의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기초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초학습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학업성적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청소년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경우 대학진학을 하지 않더라도 직업현장에서 성장가능성을 지니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본 실태조사의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비(非)이주배경청소년에 비하여 사교육 경험이나 사교육 시간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으로 학력격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보다 질 높은 일자리에 진입하고 비(非)이주배경청소년과의 격차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학습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차별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매일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특히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들이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다.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첫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은 비(非)이주배경청소년과의 성장 기회 격차해소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비(非)이주배경청소년과 이주배경청소년 집단이 성장 기회에서 격차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비(非)이주배경청소년과의 격차가 해소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비(非)이주배경청소년과의 격차를 파악하고, 객관적 실태를 공개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보면 이주배경 집단 내에서도 국내에서 출생했는지 국외에서 출생했는지, 외국배경인지 탈북배경인지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경우 모든 이주배경청소년 집단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 집단을 동질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다양한 특성과 그에 따른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각 요구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은, 특히 외국배경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주로 어린 연령층, 재학생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간 많은 발전이 있었고, 이제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나타나는 중고등학생 및 그 이후의 후기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한 지원방안, 집단별 취약성을 고려한 방안 등 보다 세밀한 정책기획이 필요하다.

넷째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격차 해소를 위한 방향과 더불어 그들을 둘러싼 다수자 대상의 다문화 인식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간 다문화교육은 강화되어 왔고, 다문화 수용성도 점차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인식 수준에서만 증가할 뿐 현실적 상황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보다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다문화 수용성 제고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 협력이 필요하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은 여성가족부만의 정책이 아니라 교육부, 통일부 등 여러 부처가 관계된 다부처 사업으로, 각 부처의 협력 없이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예를 들면, 부처 협의를 통하여 공동조사를 기획하여 학교 안은 교육부가, 탈북배경자는 통일부가, 학교 밖은 여성가족부가 조사를 담당하여 데이터를 합하거나, 외국배경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탈북배경은 통일부가 추진하여 데이터를 합하거나, 여성가족부가 총괄을 하되, 부처별 협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 중에서 가장 효율적 조사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무리

짧은 기간 내에 전국에 거주하는 4,500여 명의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협조가 있었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의 다문화청소년지원기관, 대안교육시설, 이주민 당사자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 협조가 없었다면 본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조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도움이 되는 그래프

연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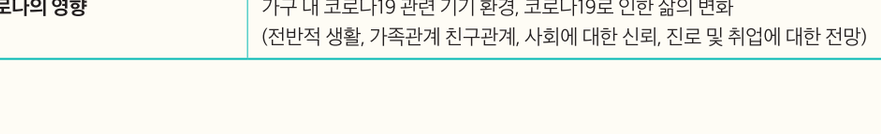
•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에 따른 유형

부모 배경 \ 본인 출생	국내 출생	국외 출생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	①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② 국외 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부모 모두 외국인	③ 국내 출생 외국인 가정자녀	④ 국외 출생 외국인 가정자녀
부모 배경 \ 본인 출생	남한출생	남한 외 지역출생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	⑤ 남한출생 탈북배경청소년	⑥ 탈북청소년
부모 중 한 명은 외국인 다른 한 명은 북한이탈주민		⑦ 제3국출생 탈북배경청소년

출처: 양계민 외(2021:16) 〈표 II -1.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에 따른 유형〉

• 연구 대상

한국 거주 9세-24세의 이주배경청소년 4,08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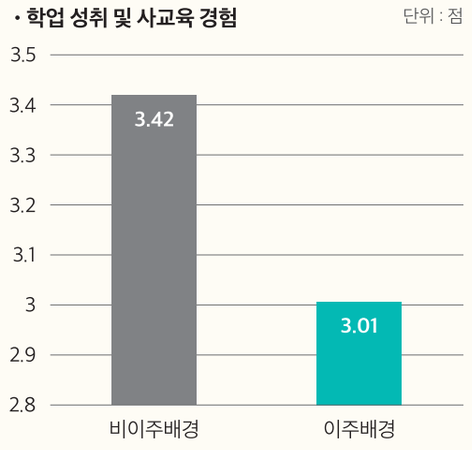


• 이주배경청소년 집단 비교 영역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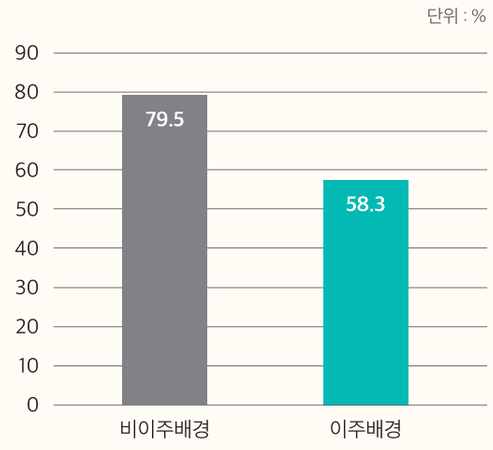
영역	조사항목
배경 특성	성별, 생년월
신체적, 심리적 건강	스트레스, 심리상담 경험, 주관적 건강평가, 일상생활 만족도, 자아개념
가정 및 지역사회 환경	가정 및 환경에서의 의견 존중, 보호자와의 활동, 주거환경
사회인식 및 가치관	한국 사회 인식, 사회나 정치문제 관심 정도, 투표연령 인식 및 투표 의향, 남북교류에 대한 인식, 다문화 수용성
교육 및 청소년활동	대학 입학 후 휴학경험, 학교생활 만족도, 주관적 학업성취, 자기주도 학습 경험, 사교육 경험, 방과후 활동, 청소년 활동 경험
진로·직업탐색 및 사회진입	희망교육수준, 장래희망, 직업, 진로의식, 직업훈련, 아르바이트 경험, 취업여부, 현재 직업, 월평균 소득, 종사상 지위 및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형태, 근로사유, 노동 부당행위 및 처우 경험, 구직활동 여부 및 기간
코로나의 영향	학업 스트레스, 온라인 학습 및 활동 확대에 대한 태도, 가구 내 코로나19 관련 기기 환경,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전반적 생활, 가족관계 친구관계, 사회에 대한 신뢰,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

집단 간 비교

• 학업 성취 및 사교육 경험



〈학업 성취(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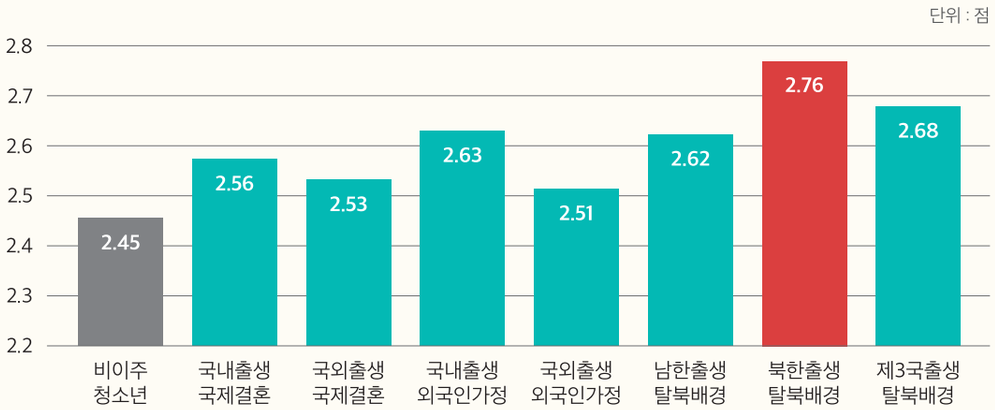


〈사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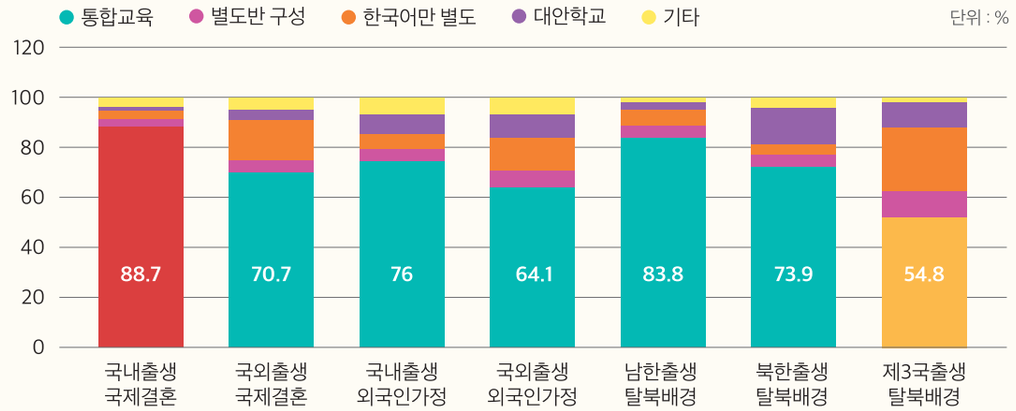
• 한국 사회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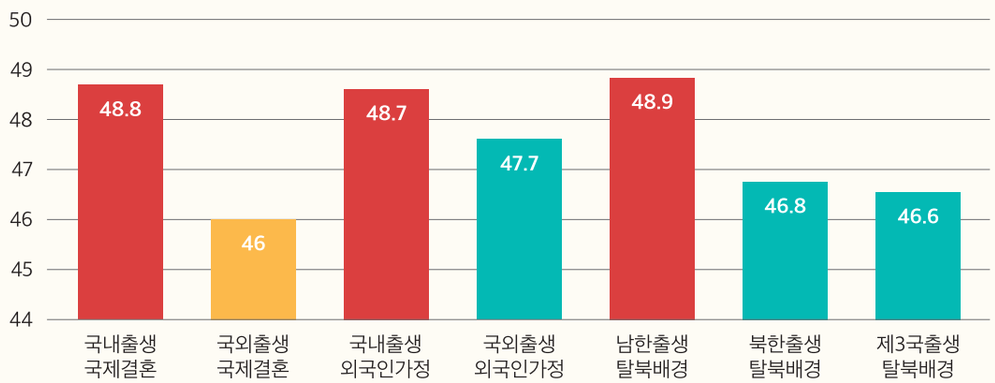
이주배경청소년 유형별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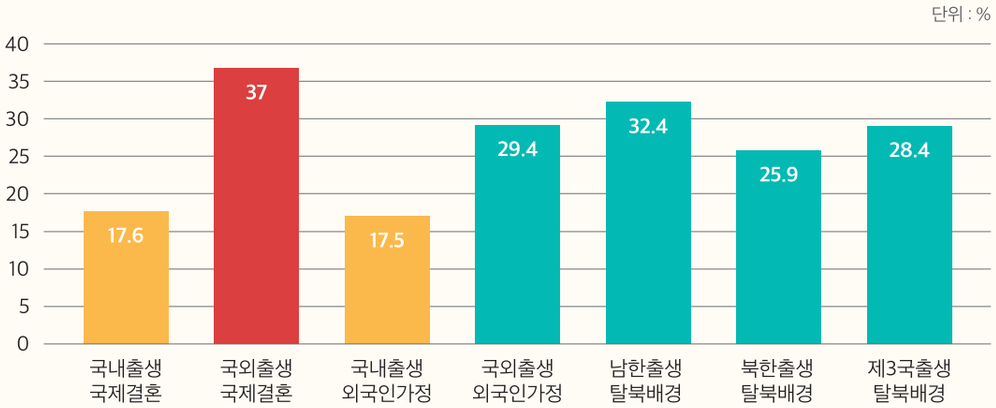
〈일상 스트레스(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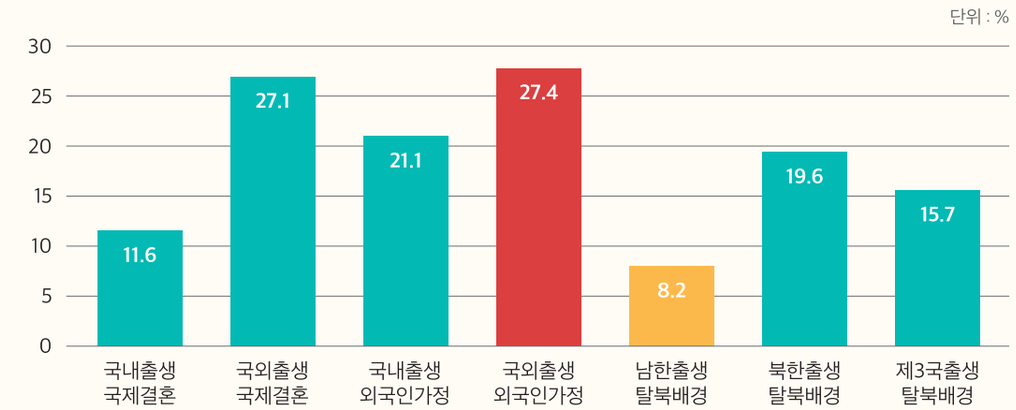
〈선호하는 교육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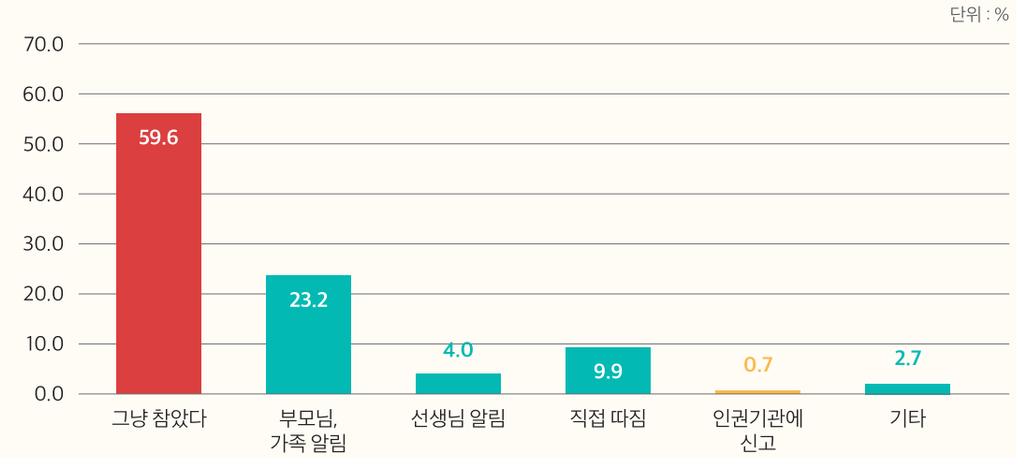
〈생활만족도(120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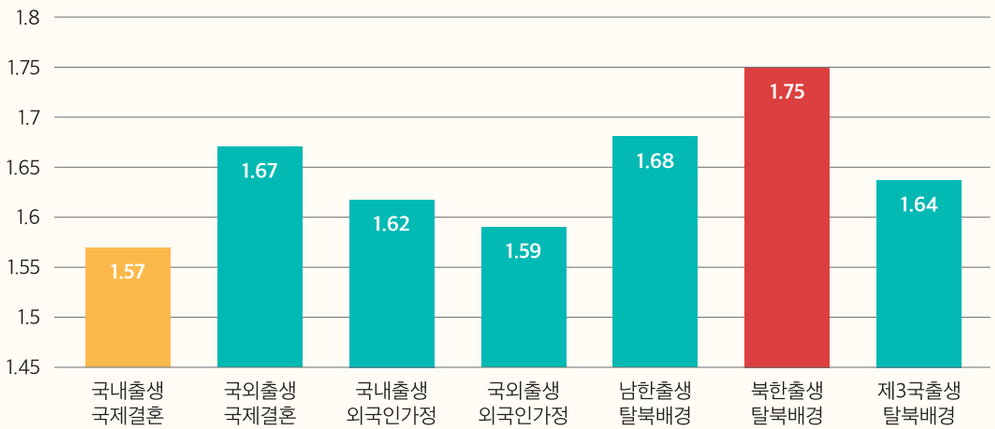


〈차별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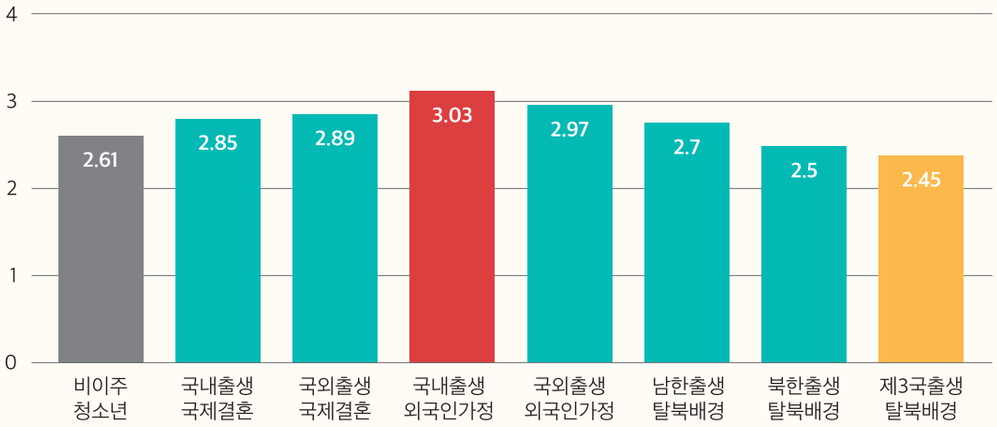
〈차별당한 후 행동〉

단위 : 점



〈보호자 방임(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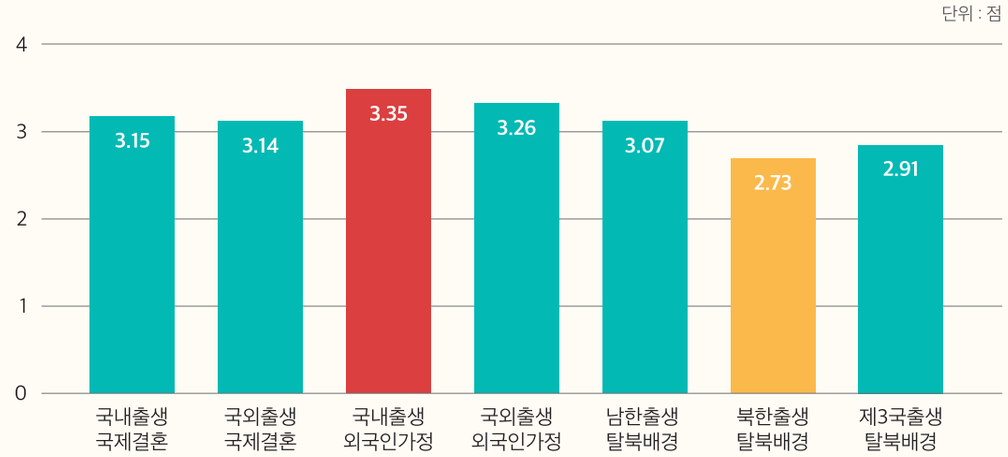
단위 : 점



〈보호자와의 활동빈도(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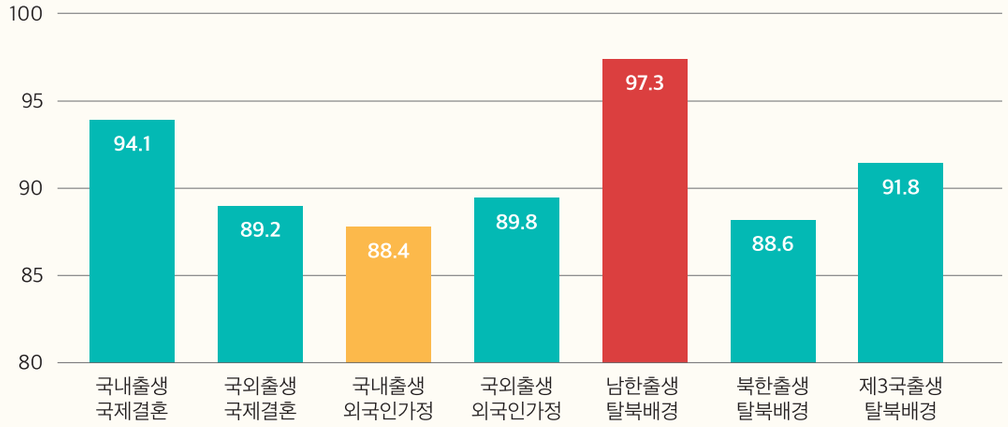
가정경제수준 및 도와줄 사람 유무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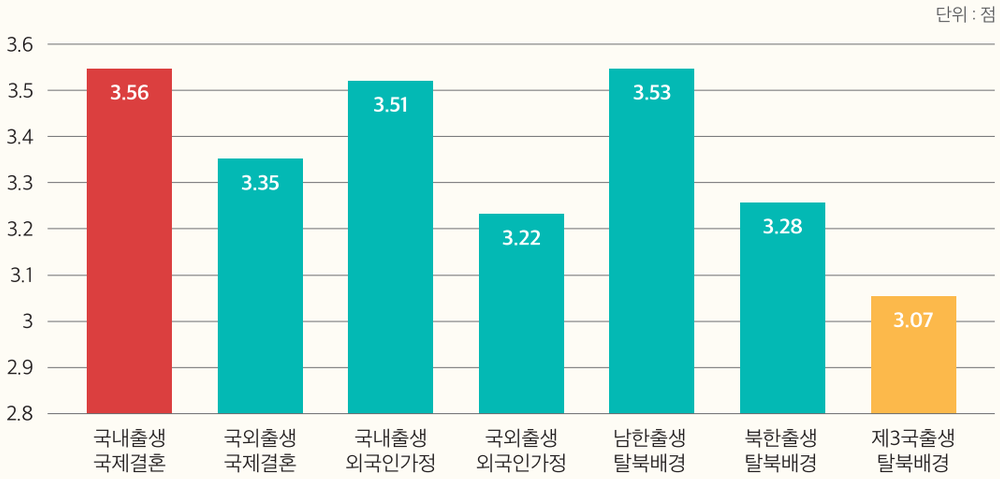
〈가정경제수준(5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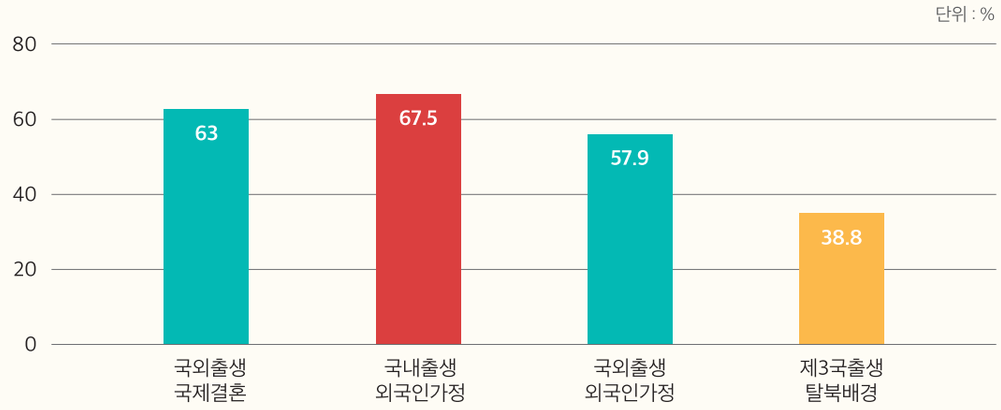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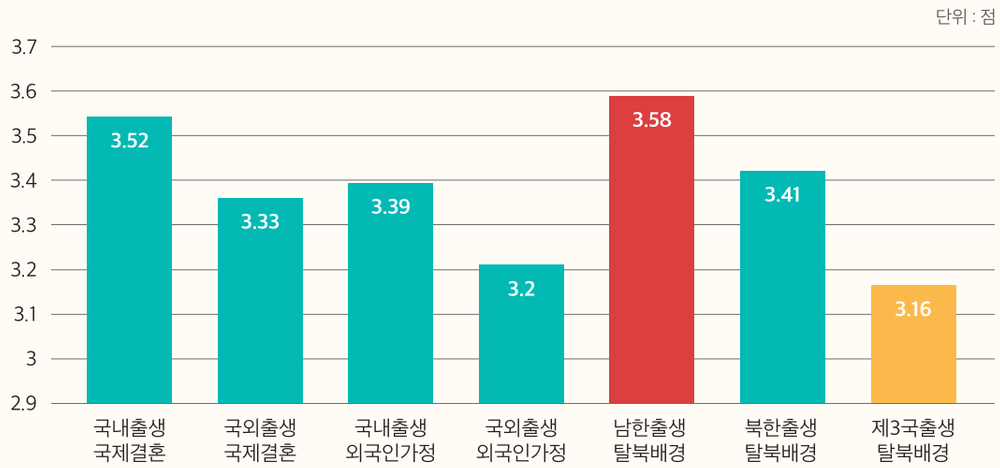
한국에 대한 태도



〈한국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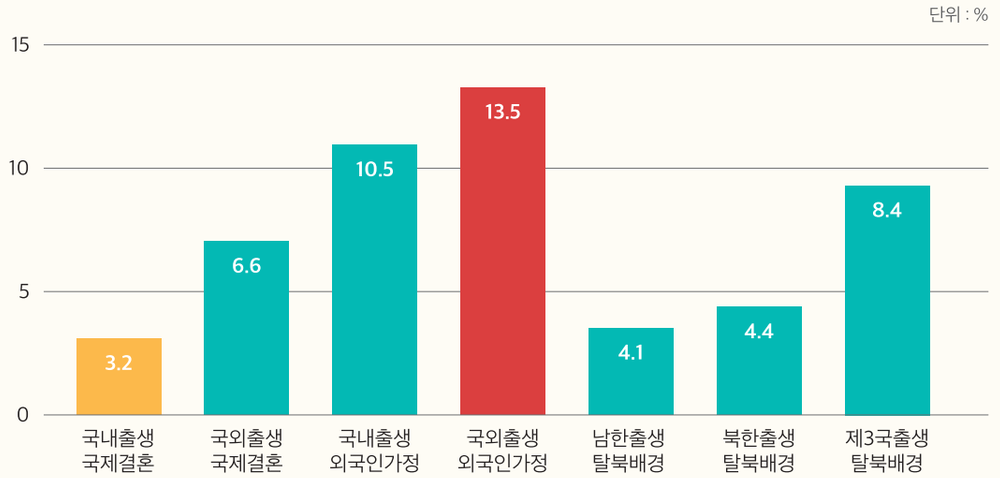


〈향후 한국거주의사가 있다('예'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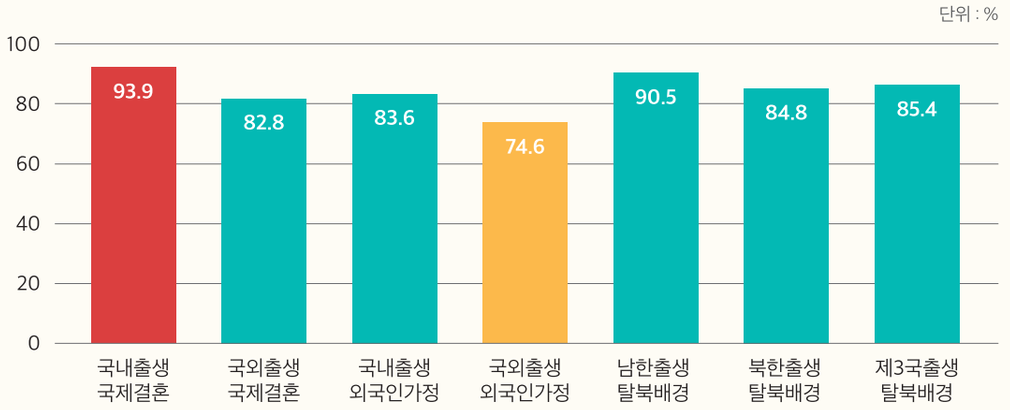


〈한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4점)〉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건강검진 경험〉

2
이슈 발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고민하게 되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의 미래
김윤영 I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소장

학교 현장에서 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의 필요성
한경은 I 경기 신천초등학교 교감

지역현장에서 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의 필요성
이승미 I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

이주배경청소년 통계 구축과 활용에 대한 소고
조혜영 I 공주교대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상담 전공 주임교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고민하게 되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의 미래

김윤영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소장
미국 하와이주립대학교 인류학박사 학위취득(2009)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2010-2012)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및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과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
관장 역임(2014-2019)
yyoungkim@rainbowyouth.or.kr

들어가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는 2020~2021년에 걸쳐서 4,078명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했다. 한국사회의 이주배경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은 최초라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상황 가운데서 이주배경청소년 유형을 7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을 발굴하고 동의를 구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정말 도전적인 일이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들 그리고 실태조사가 가능토록 도와주셨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유관기관 전문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실태조사는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본인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운영을 책임지는 소장으로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현주소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얻게 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물론 이번 실태조사는 기초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원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유형별 세분화된 심층연구들이 추후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를 심사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래서 섣불리 시사점이나 정책 제언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정책의 방향성이나 보완점을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현재 노력하고 있는 일들

현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크게 5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는 기초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다. 첫 기초조사 연구의 산출물이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진행된 바로 이 실태조사인데, 이러한 기초조사 말고도 1년에 3회 이슈브리프 및 이슈브리핑 '이주배경 924'라고 하여 현장에서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이슈들을 발굴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슈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글과 영상으로 녹여내어 보급함으로써 정책개발이나 제도개선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둘째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 주력한다. 한국어나 생활적응, 진로교육, 다문화감수성 교육, 상담, 전문가 연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입국초기 학생들 대상의 생활적응 특화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 기관에서 활용 중이고, 예비청소년지도자 대상 연수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사 대상 전문연수와 자격연수에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 및 개발했다. 기존에 개발된 청소년다문화감수성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며 활용 가능토록 힘쓰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의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면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셋째는 전국단위 사업지원인데, 교육사업과 심리상담지원으로 나눈다. 교육사업은 현재 전국 27개소에 위탁지원을 하는 레인보우스쿨사업이 대표적이다. 한국어교육형, 진학준비형, 진로특화형으로 유형을 나누어 기관의 특성에 맞게 위탁운영토록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으로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비교문화체험학습, 그리고 정착한 탈북청소년들에게 성, 건강, 진로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교육을 담당한다. 심리상담지원은 개인과 집단상담 그리고 지역에 위촉직 상담사를 파견하여 사각지대의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상담통역지원사 20명을 시범적으로 양성하여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필요한 기관에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년간의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응척도가 개발되어 곧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도록 구비하고 있다.

넷째는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매해 현장 실무자 대상 연수를 진행해왔다. 올해는 교육생 수를 대폭 확대하였고, 또 연수대상자의 유형도 다양화하였다. 특히 청소년 관련 학과에 재학하며 청소년지도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자 해당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연수를 진행했다.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아 지속하면서 확대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 또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 자격연수의 교육콘텐츠가 개발되어 전문연수는 올해 수행하고, 내년에는 자격연수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과 직접 연관된 기관의 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다면, 범위가 좀 더 확대되어 청소년 관련 시설에 종사하는, 혹은 종사할 사람들을 사전에 준비시키거나 교육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은 이렇게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이나 콘텐츠의 개발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인식개선 사업인데 대표적으로 '청소년다문화감수성교육'이 전국 40여개의 학교 및 유관 기관과 연계되어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 지닌 고유 콘텐츠로서 60여 명의 강사풀도 갖추고 있는 사업이다. 다양성(인식, 관용, 수용), 관계성(공감, 소통, 협력), 보편성(반편견, 반차별, 세계시민성)의 내용으로 총 12차시가 구성되어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대면수업이 불가해지면서 온라인 콘텐츠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급하게 진행된 터라 매년 개정과 함께 본격적인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사풀 양성과 보수교육의 확대, 그리고 다문화감수성 척도의 개발과 활용도 구상 중이다.

이상 이렇게 5가지의 내용 하에 세부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사업이 구상되어 성실히 수행 중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반가운 것은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필요한지,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두어야 할지를 가늠해보는 근거가 되었다는 점이다. 개선하거나 새로 구상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주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실태조사가 의미 있는 것은 처음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집단을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시행했다는 점, 그리고 비(非)이주배경청소년과 비교할 수 있도록 기존 비(非)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조사 항목과 동일하게 설계하여 시행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비(非)이주배경청소년과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비교와 함께 이주배경청소년을 국내출생과 국외출생, 국제결혼자녀와 외국인 자녀로 나누고, 북한배경청소년을 북한출생, 남한출생, 제3국출생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를 고민해보았다.

첫째,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의료 접근성과 건강검진의 경험에 대한 결과였다. 국내외출생의 외국인 자녀가 몸이 아픈데 병원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검진 경험의 비율이 낮은 경우로 나타났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심층조사 없이 섣불리 해석할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결과에 제시된 대로 의료비나 병원비의 높은 비용에 대한 경제력 부족일 수도 있고, 언어소통의 문제나 이용방법을 몰라 병원 이용을 꺼릴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단순히 문화적 차이로 이용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어찌되었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건강과 보건에 대한 후속 실태조사와 함께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 재단에서는 과거에 외부후원으로 받은 예산으로 건강검진과 치과치료, 그리고 심리치료비를 지원했었다. 그런데 예산부족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 사업들이 끊겼고 그나마 외부후원으로 진행되었던 심리치료비 지원도 코로나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한 기업후원이 끊기면서 손을 놓게 되었다.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당장의 예산 확보 없이 가능한 지원 방안을 생각해보려 한다.

둘째로는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인권 존중, 다양성 인정, 다문화수용성, 남북통일의 문제나 남북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등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각 주제들에 대한 인식들이 비(非)이주배경청소년이 훨씬 부정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이주배경청소년과 비(非)이주배경청소년 간에 크게 벌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국 사회는 인구수 감소와 지방의 소멸이라는 주요 난제를 안고 있으며 해결하기 위해서 이주민들로부터의 노동력 확보는 불가피할 뿐 아니라 이주민들의 출산율 증가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과제와 미래를 생각할 때 다문화수용성, 다양성 인정 등 사회통합과 포용을 위한 인식의 전환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다른 어떤 지원사업보다도 한국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셋째는 교육영역에서 사교육의 경험에 대한 부분인데, 기초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비(非)이주배경청소년과 이주배경청소년의 사교육 경험의 차이가 많이 나고, 국외 출생 외국인 자녀의 경우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 혜택의 가능 여부는 집안의 경제력, 계층의 문제와 연결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배경과 이유이든 국외출생 청소년의 기초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무엇일지를 좀 더 고민하고자 한다. 재단에서는 외부후원 예산을 가지고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업들에 비하면 비중은 상당히 적다. 장학금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 그 밖의 학습증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의 구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은 43%가 2-3년제 대학교 이하의 학력을 희망하여 이른 시기에 직업을 갖고자 한다. (비(非)이주배경청소년은 11%) 따라서 직업훈련에 대한 관심이나 요구도 높은데, 정작 직업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비율 75%나 되었다. 그 이유가 '알지 못했다'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보통 현장에서도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은 주고 있으나, 정작 실질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결시키는 진로컨설팅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연결지어서, 마지막으로 노동현장에서의 욕설과 폭언, 차별의 경험의 비율이 국외출생 이주배경청소년에게 높이 나타났다는 결과에 주목했다.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하게 된 후 노동현장의 실태에 대해서 정작 우리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회에 진출한 후기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형태와 노동실태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거꾸로 전체적인 진로 지원사업에 대한 재검토,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해본다. 또 노동현장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이나 불합리한 피해를 해결하고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지원 방안을 구상해 보려한다.

나가며

이상으로 지원 사업에 몰두하는 기관의 소장으로서 나름대로 시사점을 발견하고 정리해보았다. 무엇보다도 이 실태조사는 기초연구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책 제언과 방향 구상을 하려면 이주배경청소년의 세부 유형별 특성에 대한 재분석과 결과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 지원사업의 개선점을 살피고 지원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을 나열하였다.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구상하여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실태조사의 결과물을 접하는 모든 현장 전문가분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다. 축적된 경험들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 전문적 식견이 모여 지원의 발전안을 마련한다면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학교 현장에서 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의 필요성

한경은
경기 신천초등학교 교감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다년간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하였으며
2021 교육부 평가위원으로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정책
컨설팅을 하였으며 경인교육대학교 강사로 활동 중이다.
ulalasam@korea.kr

학교 현장에서 바라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의 현황

다문화 학생 수 14만 명, 이는 전국 학생 수 대비 3%에 이른다. 흔히 언급되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현시점에, 다수의 학교와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은 교육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와 각 관계 기관에서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왔으며 소기의 성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급변하는 정책 수요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한발 늦게 뒤를 따라가고 있는 느낌을 현장에서 받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비추어 기대되는 바는 지금까지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 본 연구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연구한 경우는 처음인데, 이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지원정책을 바라보기에, 본 내용은 교육부에서 다루고 있는 다문화 학생 통계 및 정책을 기준으로 서술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초·중·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의 한계

학교 현장에는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재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배경청소년의 배경과 상황에 따라 세분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가 넘는 학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 어떤 학교는 고려인 동포와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에서 이주한 외국인 자녀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질적 문화와 언어에 대한 적응 지원으로 언어 교육과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서 심리 교육 지원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비율의 다른 학교의 경우 재일동포 자녀 또는 일본인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가 주를 이루고 있어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 적응 교육은 별로 필요하지 않고 소질과 장점을 살린 진로 개발, 진로 지도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은 지역이나 이주배경청소년 배경의 특성에 맞게 좀 더 세밀화된 정책 지원이 필요하나, 지금까지의 정책은 아쉽게도 이와 상관없이 동일화된 경향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처럼 다양한 분류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책 연구 보고서는 향후 관련 기관들의 정책 수립을 더 세분화하고 각 정책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하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다양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여러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한국어 교실을 봐도 여가부, 교육부, 행안부 등 부처별 계획에 따라 각자 따로 학교에 적용되고 있다. 이런 사업을 통합하고 유기적으로 각 기관을 연계하는 부처별 연계 방안과 다문화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콘트롤타워를 논하는 문제는 지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회자되는 문제다. 물론 많은 시도가 있었고 일부 사업에서는 부처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누구나 다 필요성을 언급하고

동의하면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학교 현장에서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및 제언에 대한 공감과 바람

첫째, 본 보고서에서 가장 의미 있게 공감한 부분은 이주배경청소년의 강점이 있다고 조사하여 제시한 부분이다. 다문화교육을 하는 교사들 역시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경험했던 바이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본인이 지난 수년 동안 근무한 경기도교육청은 다문화교육을 복지 차원의 교육 정책에서 벗어나 장점 개발 교육 정책으로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으며, 장점을 개발한 성공 사례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 및 진학 동기의 강화가 강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이는 더 이상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선별적 복지 차원의 시혜 대상이 아닌 보편적 복지의 동등한 교육의 대상으로 인식 전환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후기 청소년 집단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매우 공감한다. 이주배경청소년들도 한국어 교육과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에서, 어느 사회에서든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진로 진학 교육으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제는 한국 사회나 그들의 모국 사회에서 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출구전략인 진로 직업 교육 및 정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 교육 정책의 지원을 받아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고 성장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상위 학교의 진학이나 취업의 출구를 찾지 못하여 다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없도록 후기 청소년 집단의 실태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초학습 능력은 이주배경청소년을 떠나 모든 학생의 문제다. 감염병의 확산으로 제대로 된 대면 수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2년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다가올 학습결손과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물론 학습 동기와 학습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향후 정책 지원의 측면에서 기초학습 능력 지원에 더 면밀한 관심을 두고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은 동의한다. 이는 단순히 학습 능력의 제고에서만 그치지 않고 향후 진로 탐색과 인식 및 진로 동기와도 깊은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하여 제고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과 세계 시민성의 함양은 다보스포럼에서 언급된 것처럼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다. 그러하기에 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을 직접 실천하는 교사 대상의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와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시급하다. 현재도 교사 대상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15시간 이상의 다문화교육 연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다문화라는 언어가 인식 수준에서는 높아졌지만, 실제 행동 측면에서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말이 학교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어느 교사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다문화교육을 머리는 인식하는데 가슴이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말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교사 대상의 다문화교육 연수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준다.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의 방향성

여러 기관에서 많은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시도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느끼기에는 비슷한 정책이 중복되어 시행된다는 생각이 많다. 현재 분절적으로 지원되는 각종 정책을 통합하고 연계한다면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학교나 기관의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변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은 실태조사는 각 기관의 정책 연구의 기반이 되고, 정책 연구는 각 관련 부처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된다. 본인도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공신력 있는 정책 연구기관의 정책보고서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렇게 수립된 정책이 학교 현장에 시달되어 지속적인 효과를 내려면, 본 연구와 같은 지속적인 실태조사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연속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지역현장에서 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의 필요성

이승미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
교육학(교육심리)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국가인권위원회,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에서 일하고 연구함.
smlee@globalansan.com

조감도로 본 지역센터 현장

구역1) 상담실
코로나19로 주춤하던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입국이 올 하반기 접어들면서 부쩍 늘어 246명에 대한 입국초기상담이 이루어졌다. 미리 연락하고 오는 경우는 통역선생님이 대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원이나 한국어교원이 긴급하게 통역원으로 투입된다.

구역2) 사무실 앞 로비
쌀, 라면, 김, 영양제, 방역물품, 유아용품 등 긴급생계·의료지원 물품들이 쌓여 있다. 인수증이 필요한 물품들이어서 사례관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가정에 배부한다. 센터로 직접 오지 못하는 가정엔 직원들이 물건을 차에 싣고 가정방문을 한다. 방역용품과 영양제는 국내출생 난민가정 아동에게 긴급하게 전달된다. 미등록 상태의 아이들은 의료보험이 없어서 아프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구역3) 4개의 교실
입국초기 이주배경청소년들 중 학교진학을 원하는 아이들이 240시간 한국어교육 후 시험을 거쳐 학력인증을 받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학교생활 안내를 위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통역사가 언어그룹별로 모여 앉아 순차통역을 한다. 다른 두 개의 교실에서는 한글자모도 못 떼고 온 아이들을 위한 기초수업과 18~19세에 입국하여 학교입학이 어려운 청소년기 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한국어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두 56명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여기서 입국초기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구역4) 2개의 교실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중도입국청소년 중에 학교 적응이 어려운 친구들 24명이 2개 반에서 대안교육을 받고 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은 더욱 힘겨웠

센터 직원들이 급식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꿈빛학교(경기도 교육청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 입학식 단체 사진

다. 위탁교육 문의를 해 온 학교도 더 많아졌다. “선생님도 아이들도 친절해요. 그런데 첫날이 지나면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고, 저도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입학 면접에서 한 아이가 한 말이다.

구역5) 꿈다리학습지원실

학교밖 이주배경청소년 12명이 학력취득을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한국어예비학교 240시간을 수료한 학생 7명이 학교 입학 전 교과수업을 받고 있다.

구역6) 현관 앞 로비

심리정서지원 담당직원이 심리상담을 받기로 한 학생과 통역사를 기다리고 있다. 주1회 심리상담을 위해 아이를 상담센터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부모님이 거의 없다. 대개 야간작업을 하시거나 다른 도시에서 공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담당자는 통역사 구하기와 통역을 통한 상담을 허용하는 센터나 병원을 찾는 일이 가장 힘들다.

안산의 이주배경청소년 현황과 특징

안산은 인구 735,308명 중 82,191명(11.1%)이 이주민이다(2021년 10월 말 기준). 이들 중 11,360명이 24세 이하 외국인가정(동포포함) 아동·청소년으로 외국인 주민의 13.8%에 해당한다. 이들 중 초중고 학령기 연령대에 6,400여 명, 20세 이상의 청소년기 후기 연령대에 3,300여 명이 있다.

안산은 다른 시도에 비해 외국인가정의 국외출생 청소년이 많은 곳이다.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95,130명의 외국국적의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중 경기도에 77,303(26.2%)가 있다(양계민 외, 2020). 조사 시점의 시간차를 고려한다고 해도 이들 중 10,000명 이상(약 13%)이 안산에 있는 셈이다. 이렇게 안산시 관내 이주민 분포에서도 그렇고,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서도 안산에는 외국인가정의 국외출생 청소년들이 많다.

외국인가정의 국외출생 청소년들의 특성을 보면,‘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높으며, 건강검진 경험 비율이 가장 낮고, 한국어 부족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어려우며, 노동현장에서 부당경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부당노동행위 경험 비율도 가장 높다. 그리고 이주배경집단 내에서 차별경험도 높은’ 편이다(양계민, 2021). 중도입국청소년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입국 전 부모와 떨어져 지낸 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6%에 달하며, 그 중 5년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9%나 되었다(배상률, 2016). 이주 과정에서 가정의 파괴와 불화, 성장기 양육자와 격리, 방임 등으로 인한 불안감과 무력감. 원하지 않는 이주로 인한 분노와 무기력 등이 사례관리를 통해 만나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이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 및 지역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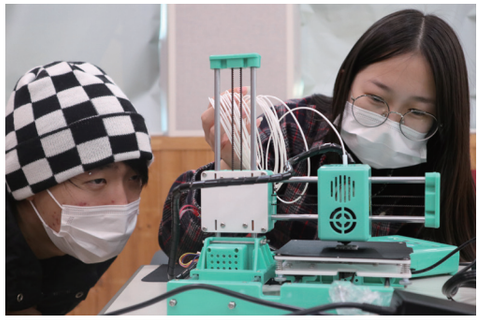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의 자녀들의 체류자격을 보면 F-1, F-2 등의 비자로 한국에 1~2년 이상 체류할 수 있으며, 동포 자녀(F-1)의 경우는 24세까지 체류연장이 가능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동포비자(F-4)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동포비자(F-4)로 변경 가능하여 장기체류의 가능성은 매우 크며, 장기체류 후에는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을 받을 수 있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기반 취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보호체계 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안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장치나 사회안전망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이주배경아동·청소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전국에 안산을 포함, 서울, 수원 등 3개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들 기관(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수원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서울온드림교육센터) 마저도 非법정 사회복지시설(기타 시설)로 분류되어 인력운영, 예산배분, 운영 지침 등이 미비하여 운영상의 곤란을 겪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상담지원, 진로지도를 위해서는 오랜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법적기반이 취약하여 인력의 잦은 이동으로 말미암아 현장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필요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이주배경청소년 시설 종사자를 교육하고, 교육 및 상담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재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중앙정부차원의 정책 실행체계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주민이 서울의 서남권 3개구(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에서 부천 등 경기지역으로 이동하고, 안산에서 충청북도와 경상남도로 이동하는 등 노동과 고용시장을 따라 국내 이동이 잦아지면서 부모를 따라 이동하는 이주배경청소년(특히 외국인가정 자녀)이 증가하고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가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청소년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거주지 이동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전국적 차원의 전달체계를 통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지원, 정보와 자원의 공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법적 제도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체계를 갖춤으로써 중앙과 지역 센터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가가 효율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체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사회로 접어든 현재, 국가가 이주배경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포용사회 건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창업진흥원과 함께하는 진로 탐색 활동이 한창이다.

다시 현장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정착단계별로 접근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초기정착단계의 한국어교육지원, 통합정착단계의 심리정서지원, 자립단계의 진로지원이 중요하다. 이 모든 과정에 전문가적 접근이 필요하나 현장은 전문성을 기르기에 제도적 지원도 취약하고 늘 시간에 쫓긴다.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한국어강사 보수 교육이다. 성인학습자가 아닌 아동청소년 대상 한국어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에 기초하여 한국어강사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상담통역사 양성도 절실하다. 한국어 통역 지원이 안 돼 긴급의료지원이 안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심리정서 지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립단계의 진로지원에서는 중앙-지역, 지역기관 간의 연계가 중요하다. 지역의 대학, 노동 현장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지역 간 연계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넘어 직업체험의 폭을 넓혀 ‘삶의 터전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지역현장의 노력만으로 당장 필요한 이런 일들을 해내기엔 확실히 역부족이다.

참고 문헌

양계민 외. (2020)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기회 격차 해소 방안연구: 통계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양계민 외. (2021)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배상률 (2016)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 통계 구축과 활용에 대한 소고

조혜영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상담 전공 주임교수
(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다문화,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연구를 수행해 왔다.
johye@gjue.ac.kr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 집단의 배경은 더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11월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현황은 222만여 명을 넘어섰고, 이 수치는 총 인구(51,779,203명)의 4.3%에 이른다. 2006년에는 총 인구 대비 1.1%에 불과했던 이주민 규모가 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행정안전부, 2020). 이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들, 제3국출생 북한이탈 청소년들도 지속적으로 입국하여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 집계된 다문화학생 수는 147,378명으로 2012년의 4만 6천여 명에 비해 10만 여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0).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 인구의 증가와 이들의 건강한 성장은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 '다문화' 아동·청소년으로 불리고 있으며, 일반적인 사회인식은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 인식 이면에는 보다 다양한 입장들이 있으며, 이러한 입장들은 갈등과 대립을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다문화' 인구집단에 대한 지원 일변도(一邊倒)의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포용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들은 결핍된 집단이라는 인식을 내재하고 있다. 이주배경 인구집단이 '일반적인' 한국사회 구성원과는 다른 '타자화'된 지원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한편, 이주배경 인구집단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선주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입장도 대두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거주 환경, 가족 및 개인적 여건 등에 따른 사회적 취약집단에 비해 이주배경 집단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청소년정책 수립과정에서는 사회적 인식이나 담론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그에 대한 체계적 분석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그간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이주배경청소년 집단 구성원에 대한 대규모 실태 조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특히, 이주배경청소년 체류 기간이 장기화되고, 다양한 경로의 이주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등 이주배경청소년 인구집단 구성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지 못해왔다.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의 의의와 활용 방안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 구축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된다.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에 근거하지 않은 지원 정책은 공공 재정의 낭비나 정책 사각지대를 남길 위험이 크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일반적 편견을 재생산하거나 강화할 소지를 남긴다. 결국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도모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실태조사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는 '본인이나 부모가 이주 경험을 가진 9세부터 24세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위 집단 유형으로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외국출생 자녀, 외국인가정의 국내 출생·국외출생 자녀, 북한이탈배경을 가진 북한출생·남한출생, 제3국출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배경청소년을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세부적인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을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써의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실태조사 보고서를 살펴 보면 다양한 항목별로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비교가 가능한데, 일부 항목에서는 일반적인 통념이 수치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비이주배경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청소년의 경우, 후기 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 수준과 관련하여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 친구나 이성 친구에 대한 교류 가능성은 이주배경청소년집단이 비이주배경청소년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많은 조사 항목에서는 비이주청소년집단과 이주배경청소년집단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는 다른 상반되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생활만족도 수준과 관련해서는 비이주배경청소년과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사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인식,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라는 인식,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라는 인식,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에서 이주배경청소년집단이 비이주배경청소년보다 더 긍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운 점이 없다는 점, 학교 내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학교 내의 또래 괴롭힘 피해 등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그에 따라 이러한 응답의 배경을 분석하는 심층적 후속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리고 개인의 심리 측면인 자아개념, 사회적 존중, 부모와의 활동 및 지역사회 환경 수준 등 일부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이주배경 하위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이주배경청소년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경험에 있어서도 과학정보활동, 모험개척활동, 자원봉사활동, 직업진로활동, 건강보건관련활동, 인성활동, 환경보존활동 등에서 이주배경청소년집단이 비이주배경청소년보다 더 높은 참가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직업훈련 경험에 있어서도 비이주배경청소년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 배경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삶에서 이주배경청소년집단이 전반적으로 비이주배경청소년집단에 비해 스트레스가 낮은 점, 온라인 수업과 청소년활동에 대한 찬성도가 높은 점,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이 더 긍정적인 점 등도 흥미로운 결과이며, 수치 이면에 어떠한 해석을 함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이러한 실태조사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신중함도 요구하다.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집단별 심층조사가 병행됨으로써 평균의 오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주배경청소년집단 내에서도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부모의 학력, 소득수준, 사회문화자본 수준에 따라 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그리고 실태조사에서 분류한 유형이 집단별 차이나 특성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절대 근거임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 성장 과정과 발달 특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제3국출생 탈북배경청소년과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중도입국청소년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결국, 유형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과 함께 개별 사례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병행될 때, 보다 촘촘한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참고 자료

교육부(2020).
2020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교육안전정보국 교육통계과.

행정안전부(2020).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 222만 명, 총인구대비 4.3%.
보도자료. 2020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3

함께한 사람들

이지은 I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팀장

김수영 I (사)글로벌청소년센터 대표

배예영 I 케이스탯리서치 부장

장인숙 I 남북하나재단 팀장

차미리 I (사)북한인권시민연합 팀장

최효경 I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이지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팀장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담당자
무모함 반 용기 반으로 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였다.
조사 결과가 현장 동료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
jeun8031@rainbowyouth.or.kr

2020년부터 시작된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가 드디어 끝났다. 3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보고서가 나왔고, 조사에 참여해준 청소년들만 무려 4,078명 그리고 이 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 실무자, 교사, 전문가, 연구자만 250명이 훌쩍 넘는다.

이 사업을 담당하며 추진한 실무자로서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는 어떤 의미이고, 비슷한 현장에 있는 동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게 되었다. 현장에 있는 많은 실무자들은 사업계획서를 쓸 무렵 검색창에 몇 가지 키워드를 검색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청소년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통계 #다문화학생수 …

자료나 통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쓰라고 하면 왜 그렇게 초록창에 '이주배경청소년'을 검색해 보게 되는 건지… 아마도 이런 경험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이 맞는지? 지원을 핑계로 선량한 차별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예산편성은 될지? 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확신을 줄 만한 근거를 찾으려고 한 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실태조사 보고서에 대한 기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자습서와 같은 의미로 다가왔을 듯하다. 하지만 실태조사를 가장 가까이서 지원하고, 가장 먼저 읽은 실무자로서 감히 이야기해 보자면 실태조사의 결과는 우리가 해 온 일들에 대한 근거이자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우리 모두 잘 하고 있으니 조금 더 힘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마치 이 설문에 응답한 이주배경청소년으로 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은 느낌이었다.

숫자로 가득한 이 보고서에서 감정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는데 왜 난 이런 위로를 받았을까? 물론, 이런 감성 폭발의 원인은 실태조사 과정이 정말 험난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양계민 박사님을 비롯한 연구팀과 이주배경청소년, 실무자, 교사, 전문가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실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감동과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드러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의 결과는 10년간 현장에서 노력해 온 일들을 마치 알아주는 것만 같아 나를 충분히 위로했던 것 같다. 그래서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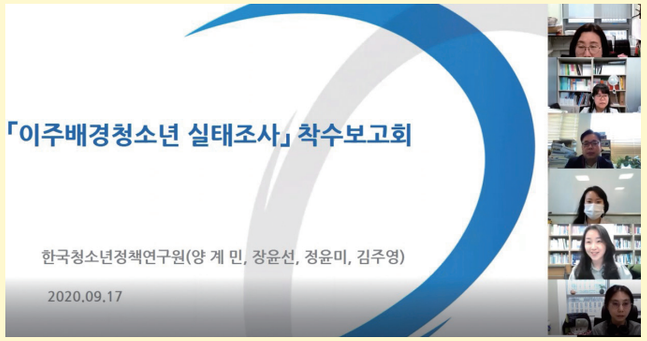
그리고 이 보고서를 읽기 전에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한 새로운 발견만을 기대한다면 분명 실망할 수 있다. 이번 조사의 배경과 우리 현장의 현실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분명 보고서에서 말하는 데이터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지 않을까 생각 한다. 2020년 1월 복직 첫날! 재단에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재단이 꼭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아래 생각들로 일주일 내내 과업지시서를 한 글자도 쓰지 못하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 이주배경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지?
- 조사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삶에 도움이 될지?
- 이 연구를 함께 해 줄 사람과 이주배경청소년들 4,000명? 대체 어디 있지?

조사 자체가 가능한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큰 규모 조사를 할 기회가 올까?'라는 모순된 생각을 하는 상황 속에서 고민도 잠시! 점점 입찰에 부쳐야만 하는 시간이 촉박해져 무모(식)함 반, 용기 반으로 무장하여 과업지시서를 쓰기 시작했다. 조사 운영에 대한 근거도 없이, 모집단 통계가 분명하지도 않은 그야말로 무(無)의 상태에서 정말 용감무쌍하게도 과제를 입찰에 부쳤던 것 같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작성해 놓은 '과업지시서'에 응하는 연구자들은 없었다. 과업지시서가 아니라 '과한지시서' 같이 써놨기에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고 그 사이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까지 겹쳐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데까지 무려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근거기반 이주배경청소년정책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 한창이다.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착수보고회가 시작되고 있다.

이 두 문단으로 정리되는 듯해 보이는 일들은 실태조사를 시키기까지 굉장히 지지부진한 과정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꼭 필요한 과정이었고 정말 어려운 과제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참여해 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가 이런 무모함 속에서 계속 되지 않도록 향후 제도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사에 함께해준 이주배경청소년 4,078명! 모집단 통계가 분명하거나 조사 근거와 조사운영 체계가 완벽히 갖춘 상태에서 운영되지 않았기에 여러 가지 한계도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표집하고, 노력한 결과로써 이주배경청소년 유형별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일상 속에서 50분이라는 긴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준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특히 조사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나 목적도 없이 그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주길 바라는 어른의 마음으로 도와준 현장 실무자, 교사, 전문가들에게 정말 박수와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 싶다.

끝으로, 이 보고서를 보는 이주배경청소년 관계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통해 조금 더 나은 지원을 고민하고, 앞으로 해야 할 무궁무진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길 기대하며 보고서를 통해 우리들이 하고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지에 대해 격려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도움이 되는 링크

중도입국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법
https://youtu.be/7UjPyahzkIM

김수영
(사)글로벌청소년센터 대표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現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강사
現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족·청소년전공 강사
現 이주배경청소년지원협의체 대표
現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진로 멘토링
이주배경청소년 분과 자문위원(교육부)
97gazet@gmail.com

조사에 대한 공감과 응원

이주배경청소년의 수가 늘어간다는 것은 알지만 학교 밖 또는 졸업 후의 현황에 대해 공식적인 집계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많은 응답자를 찾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후속 연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이주배경청소년의 니즈를 파악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사 참여 경험과 개선 방안

올해 초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에 참여했고,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조사로 실시되었습니다. 약 140여 명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실질적으로 응답 완료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70여 건이었습니다. 응답자는 설문의 문항이 많아 한 번에 모두 응답하기에는 시간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간에 멈췄다가 재입력할 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번역 오류가 있어 응답에 어려움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주배경청소년의 상황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예외적인 상황에 있는 응답자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어려워할 수 없이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2~3건 정도 있었습니다. 다음 조사에는 이와 같은 응답자들의 피드백을 수렴해 조사 설계 시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 결과와 현장에서의 활용

실태조사 문항은 이주배경청소년의 현실 상황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문항들이었습니다. 이는 추후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정책 마련에 기반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맞는 실제적인 한국어교육 및 구체적인 진로 상담, 취업을 위한 준비와 연계, 사후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해 진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 긴 시간 설문 문항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답해 준 친구들 덕분에 한국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준이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예영
케이스탯리서치 부장
조사기관 발굴, 조사 요청, 면접원 교육 등을
담당하며 조사의 최전선에서 함께해 주었다.
byy@kstat.co.kr

안녕하세요.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를 담당한 케이스탯리서치의 배예영입니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이주배경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한 정책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조사입니다.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설문지는 한국어를 포함하여 총 7개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조사는 전국에 있는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과 초·중·고등학교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프로그램 축소, 비대면 수업 실시, 외부인의 기관 출입 불가 등 청소년들을 만나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조사 목적과 의의를 말씀드리며, 조사에 참여해달라며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기관에서 참가해 주셨고, 이전부터 이주배경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주배경청소년 4,000명 이상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올해 첫 조사로 의미 있는 발걸음을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꾸준히 조사 되어서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연구와 정책이 활발하게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른 시일 안에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태조사 사전회의

실태조사 면접원 교육

장인숙
남북하나재단 팀장
탈북청소년 조사 방안 자문 시
자문위원으로 함께해 주었다.
cool@nkrf.or.kr

사회경제적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 측정을 통해 수량화된 수치, '통계'는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다. 19세기 크림전쟁에서 나이팅게일이 수많은 부상병들의 목숨을 살리는데 사용한 자원은 효과 좋은 백신이나 값비싼 치료약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꾸준히 축적한 통계였다. 환자들의 입·퇴원기록, 사망자 수, 사망원인, 병원의 청결상태 등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상보다 병원에서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군인이 많다는 점을 드러냈다. 그 결과 병원 위생의 중요성을 알려 부상자 사망률을 42%에서 2%로 줄이는 데 기여했다. 이처럼 체계적으로 구축된 통계는 과학적인 의사결정과 맞춤형 대응책을 도출하는 주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우리 사회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종합적인 통계가 부재하다. 이주배경청소년 유관 부처별로 데이터 구축 목적과 연령 기준이 상이하며, 지칭하는 용어조차 달라서 이주배경청소년 전체 규모 파악 또는 비교분석을 통한 집단별 특성 도출이 어렵다. 남북하나재단에서도 탈북청소년 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비교집단 데이터가 부재하여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이 불가하여 평면적인 실태 파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이주배경과 상이한 정착과정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기초통계 구축을 목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가 실시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개념과 용어를 정리하고, 연령기준을 수립하고, 문항을 개발로 추진된 실태조사 결과는 다양한 이주배경과 상이한 정착 과정에서 야기되는 정책지원 욕구 파악이 가능할 것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청소년 집단 유형별로 필요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인숙 조사개발팀장

차미리
(사)북한인권시민연합 팀장
북한인권시민연합 교육팀 팀장으로
북한출신 청소년 대상 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남한출신 청소년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실태조사의 후기 탈북청소년 조사에 도움을 주었다.
m.cha@nkhr.or.kr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난 지금의 대'한'민국은 '한'민족이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다양해지는 사회구성원 사이 다름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주배경청소년들에 관한 선입견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학업적·심리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하면서 두 가지가 가장 인상에 남았습니다. 먼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국 문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된 질문이 포함되어 학생들의 생활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남학생이 입대를 앞두고 학업 및 입대 전후의 적응과 관련하여 고민이 많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설문이 추가된다면 더욱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주배경청소년에 관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그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특별한 경험은 우리 사회를 더욱 성장시키고 다채롭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짧은 설문이 아니었음에도 열심히 참여해준 청소년들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저뿐만이 아닌 많은 분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는 링크

(사) 북한인권시민연합
https://www.nkhr.or.kr/

최효경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실태조사 학교 조사 방안 자문위원으로
함께해 주었으며 2017년 경기도 안산 다문화교육
담당 장학사를 거쳐 현재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jinnan@korea.k

불안은 사실을 알려달라는 감정이라고 김경일(2020)은 말하였다. 내가 처음 다문화교육 업무를 맡았던 2017년 봄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던 다문화가정 학생은 25,759명이었고 4년이 지난 올해는 40,667명이 되었다. 거의 1.6배가 증가한 셈이다. 초기에 학생들이 소수였을 때는 개별적으로 한국어와 한국적응교육을 제공하는 소극적 대응 정책이 전부였다. 하지만 정교한 정책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전에 학생들은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정책은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했다. 아니 요구는커녕, 용어조차 일치되지 않았다. 기관이나 정부부처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학생으로 불리었고 탈북학생이나 제3국출생 탈북자녀까지 거론되면 학교는 교육통계에 다문화 학생을 누구까지 입력해야하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정책은 불안정하였고 학생과 교사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시도교육청 담당자로서 협조를 요청받았다. 협조를 요청받지 않았더라도 청원이라도 하여 실시되어야 할 사업이었다. 교육정책 수립의 가장 기초는 정책 대상의 정확한 이해였다. 기존의 다문화 학생 관련 통계는 단순한 가족형태와 어버이나라의 언어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매우 기본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그들의 삶과 성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정부부처의 협력적 시스템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매우 기대를 하고 있다. 의도했던 사업 목표대로 실태조사 결과가 잘 나온다면 각 시도의 미래 교육정책 수립과 학교와 기간의 교육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교육정책은 현재 문제의 해결만이 전부가 아니다. 사회의 미래와 학생들의 성장을 대비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교육정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그동안의 정책이 이주배경 청소년이 학교에서 존재한다는 인지(認知) 중심의 정책이었다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을 깊게 이해하고 요구를 반영하는 성장지원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실태조사의 결과를 부디 정부부처, 각 기관, 시도교육청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또한 실태조사가 계속 실시되어 내용을 개선하면서 누적되는 빅데이터로써 지속적으로 정책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발간번호
MYF21-20-개

펴낸곳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발행일
2021년 12월 13일

발행인
차윤경

편집인
김윤영

편집
전현경, 박현정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24길 20, 이음빌딩 2층(03042)
Tel. 02-733-7587 / Fax. 02-733-7586
http://www.rainbowyouth.or.kr

디자인 및 인쇄
더디앤씨(thednc)

무지개청소년센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